

요엘 3 장.

➤ 들어가기

본 장은 2 장 18 절부터 선포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특별히 3 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신 후,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. 참고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와 같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은 1 차적으론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내용이었지만, 궁극적으론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생각해야 합니다.

1.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(1-13 절)

- 1) 하나님은 때가 되면,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, 그 때에 ‘여호사밧 골짜기’에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(1-3 절)
 - 우선 1 절의 ‘그 날’ = ‘돌아오게 할 그 때에’ 란 말씀을 주목하자!
 -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날을 미리 정해 두셨다는 것!
 - 그런데 이것을 돌려 생각해 보면,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에게 고통 받고, 고난 당할 기한도 역시 정해 두셨다는 것을 의미!!
 -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를 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,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고 항상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자!
 - 그런데 이때 특별히 하나님은 만국을 ‘여호사밧 골짜기’로 모은 후, 내 백성/내 기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심! (2 절)
 - 우선 ‘여호사밧 골짜기’는 유다 왕 ‘여호사밧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, 암몬, 에돔의 연합군들을 기적적으로 물리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골짜기!! (역대하 20 장)
 - 특별히 당시 ‘여호사밧’은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한 뒤,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게 함!
 - 이때 하나님은 ‘스가랴’의 아들 ‘야하시엘’을 통해 3 가지로 응답!
 - ①.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, 하나님께 속한 것!!
 - ②.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하나도 없으니,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, 담대하게 적을 맞이할 것!
 - ③. 적들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구원역사를 확인 할 것!
 - 그러자 ‘여호사밧’은 즉시 찬양대를 조직한 후, 거룩한 예복을 입혀 제일 앞에 세운 뒤, ‘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’ 라고 찬송하게 함!
 - 이때 하나님은 연합군들 스스로가 서로 공격하며 싸워서 전멸하도록 역사하셨고,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저 저들이 남긴 전리품들만 회수하게 하심!!
 - 따라서 ‘여호사밧 골짜기’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만을 증명하며 나타내는 곳!!
 - 그런데 하나님은 만국을 이 골짜기로 모으신 후, 이곳에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심!
 - 이것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‘여호사밧’ 시대처럼, 만국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신 것!!

2) 그럼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시려는 이유는 무엇인가? (2b-6 절)

- ① 그들이 이스라엘을(하나님의 백성을) 열국으로 흠뻑히 흠뻑히 때문! (2b)
- ② ‘나의 땅’ 곧 ‘하나님의 땅’인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! (2b)
- ③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! (3 절)
 - 특히 3 절 주목 => ‘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’
 - 곧 자신들의 방탕한 삶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 팔아 넘긴 것!
- ④ 하나님의 성전의 보물들을 탈취하여 자신들의 신전에 두었기 때문! (5-6 절)
 - 4 절 주목하면, 특별히 하나님은 ‘두로’와 ‘시돈’과 ‘블레셋’을 지목하시며, 저들이 하나님의 전의 보물들을 탈취하였고,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 넘기며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떠나 살도록 만들었다고 정죄하셨음!
 - 참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한 노예로 사고 판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를 짓는 것!!
 - 그런데 당시 '두로', '시돈', '블레셋'은 노예 상인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던 곳이었으며,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구입해 다른 나라로 팔던 주 무대였음!!
 - 특별히 ‘솔로몬’은 두로 왕과 앞으로 상대국의 백성들을 노예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는 조약을 맺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막음!!
 - 그런데 두로의 상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, 이스라엘 백성들을 헬라 족속에게 노예로 팔아 넘겼다는 것!! =>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?

3) 하나님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팔아 넘긴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, 이제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처럼, 저들의 자녀들이 스바 사람들에게 팔려 가도록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. (7-8 절)

-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모른척하는 분이 아니시며,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임을 기억!
- 참고로 '스바'는 셈 족속의 한 지파로(창 10:21-28), 오늘 날 예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라비아 서남쪽을 중심으로 거주했던 족속들(대하 9:1; 마 12:42)

4)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‘전쟁을 준비하라’고 선포케 하셨습니다. (9-13 절)

- 우선 참고로 전쟁은 항상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선포하는 것!
 - 그런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은, 결국 이 전쟁은 ‘여호사밧 골짜기’의 전투처럼 하나님께 속한,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곧 심판이 될 것임을 선포하게 하신 것!
-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선포하라고 하셨나요? (9-12 절)
 - ①. ‘용사를 격려하고,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 것’ (9 절)
 - 곧 군사들을 내,외적으로 잘 무장시키고, 모두 소집하여서 먼저 진군해 오라는 것!

- ②. ‘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, 낫을 쳐서 창을 만들 것’ (10 절)
 - 곧 모든 농기구들을 전쟁무기로 만들어서 공격해 올 것!
 - 참고로 이것은 항상 세상 나라들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!!
- ③. ‘약한 자도 이르기를, 나는 강하다 할 것’ (10 절)
 - 스스로 용기를 북돋으며 담대하게 나아올 것! => 이 또한 세상 나라들의 전쟁 방식!!
- ④. ‘사면의 민족들이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 것’ (11 절)
 -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부터 연합군들을 모아서 속히 공격해 올 것!
- ⑤. ‘민족들이아, 출발하여라. 여호사밧 골짜기로 오너라’ (12 절)
 -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‘여호사밧’ 시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해 보라는 것!!

✓ 결국 이와 같은 선포는 우선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해 보라는 선포이며, 설령 그렇게 해 본들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어법적으로 표현하신 것!

- 그런데 이때 13 절 주목하면, 하나님은 저들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무기가 아닌 낫을 들고 나와 추수할 곡식을 거두고, 포도주 틀이 가득 찼으니 와서 밟으라고 말씀하시며, 저들의 죄악이 크다고 선언하셨음!!
 - 곧 추수 때와 가득 찬 포도주 틀은 결국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날을 의미!!

2.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는 여호와와 심판 날 (14- 21 절)

1) 하나님은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으로 여호와와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셨습니다. (14 절)

- 참고로 요엘 선지자는 ‘심판의 골짜기’ = 만국을 모으신 ‘여호사밧 골짜기’(2 절)로 표현, 선지자 아모스는 타작마당의 날카로운 ‘타작기’로 이 날을 표현!
 - 그런데 특별히 이 골짜기에 사람들이 많다는 표현은 원어 성경에는 두 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됨!! => 곧 그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!!

2) 하나님은 ‘심판의 날’이 되면, ‘해와 달이 캄캄하며, 별들이 그 빛을 거둘 것이요’, ‘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해 진동하게 될 것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(15-16 절)

- 그럼 ‘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’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
 - ①. 문자적 해석 - 하나님의 심판 날 곧 종말의 날에 일어날 자연현상을 예언하신 것!
 - ②. 문맥적 해석 - 전쟁으로 인해 해와 달, 별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캄캄해 질 것!
 - ③. 영적인 해석 - ‘해’는 진리를 가리키고, ‘달’은 교회, ‘별’은 성도를 가리킨다고 볼 때, 마지막 말세가 가까이 오면, 진리는 어두워지고, 교회와 성도들은 그 빛을 잃고 온전히 발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!

❖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,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!!

- ①.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 날이 될 때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며, 방패가 되어 주실 것!! (16 절)
- ②.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날,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실 것이며, 결코 이방사람들이 거룩한 예루살렘을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것!! (17 절)
 - 참고로 거룩한 산 시온과 예루살렘 =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/공동체!
- ③. 뿐만 아니라, ‘그 날이 되면’,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흘러 넘치고, 언덕마다 젓이 흐르고, 유다 개울마다 물이 가득 차고,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 ‘shitim 골짜기’에 물을 대어 줄 것!! (18 절)
 - A. 우선 18 절의 ‘그 날’은 히브리 문법적으로 연대기적 도입형식으로 기록된 말로, 2 장 28 절의 ‘그 후에’와 3 장 1 절의 ‘그 날’과 연결됨!!
 - 곧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**성령 강림이 임하고**. 모든 나라를 ‘여호사밧 골짜기’로 모은 후 **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, 그 다음에** 산마다 새 포도주가 흐르고, 언덕마다 젓이 흐르는 ‘그 날이’ 시작된다는 것!!
 - 따라서 18 절의 ‘그 날’은 **예수님의 재림을 의미**한다고 보아야 할 것!!
 - B. 그럼 18 절에 표현된 성전에서 흘러 나온 샘물이 마지막에 다다른 ‘shitim 골짜기’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? 크게 3 가지 견해...,
 - ①.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'shitim'이란 곳에서 음행을 행하며 영적으로 타락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적이 있는데, 바로 그 장소를 가리킨다는 견해.
 - ②. 'shitim'에 해당하는 히/원 '하쉬팀'은 아카시아 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, 그런 나무가 자라는 척박한 땅을 가리킨 말. => 곧 죄로 인해 척박해진 세상을 가리킴.
 - ③. 갈릴리 호수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사해로 들어가기 전 통과하는 기드론 시내의 계곡을 의미.
- 3) 계속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폭행했고,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이집트와 에돔은 황무지가 되고,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(19-20 절)
 - 애굽과 에돔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대적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한 나라!!
 - 곧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며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모든 나라를 황폐케 하실 것!
- 4) 끝으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대대로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. (21-22 절)
 - 유대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킴!
 -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,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, 영생 무궁토록 축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!!

❖ 오늘 내용을 묵상하면서 드신 생각과 결단한 내용이 있다면?

❖ 중보기도 나눔